ISSN 2093-8322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Vol. 28



CRI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Vol. 28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조성된 시설 전경을 표지로 게재합니다.
본 사진은 분양률 100%를 조기 달성함과 동시에 지난 3월 준공식을 개최한
'옥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조감도)' 모습입니다.

Contents

01 권두언

-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3,806억원 전폭 지원! 4

02 기획특집

- 미래형 복합치유관광산업과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거점을 꿈꾸다 7
  제천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보은을 그리다 10
  보은군 | 기획감사실 지방소멸대응TF팀
- 미래 성장기반 마련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다 13
  옥천군 | 경제과 균형개발팀
- 지역특화자원의 연계·강화로 남부권 新거점 타이틀을 거머쥐다 16
  영동군 | 기획감사관 기획정책팀
- 다시 한 번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작은 거인 증평을 알리다 19
  증평군 | 미래기획실 미래전략팀
- 여유, 활력이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행복공동체를 실현하다 22
  괴산군 | 균형개발과 지역발전팀
- 꿈과 희망이 있는 전문관광도시로 도약하다 25
  단양군 | 정책기획담당관 기획팀

03 지역발전정책 정보

- 중앙정부 정책동향 29
- 충북 대응방안 31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 32

04 2022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 2022년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로드맵 36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3,806억원 전폭 지원!**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3단계(2017~2021) 3,257억원 대비 550억원(17%)이 증액된 3,806억원(도 1,905, 시·군 1,901)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불균형 실태조사 결과 도내 저발전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이다.

주요사업은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인구감소 대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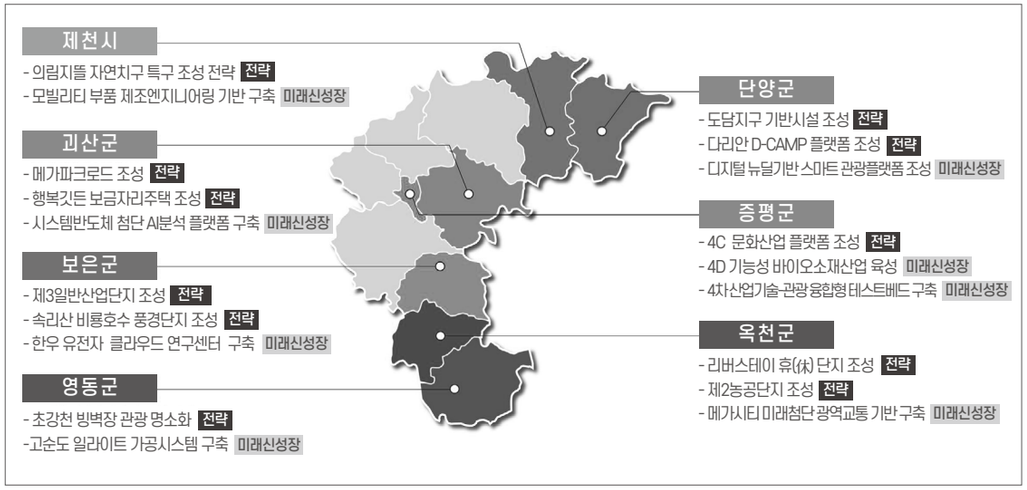
전략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중장기 핵심 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기반조성사업과 행복마을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1년 단위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4단계부터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고자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시군의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침을 수립함으로써 시 군별로 사업발굴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각 시군에서는 지역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전략사업(11건)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8건)을 발굴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구체화했으며 관련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 발굴 추진상황 보고회'를 거쳐 실무의견을 공유하고 사업실행력을 제고했다.

지난 12월에는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각 시·군별 지역자원·특성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 등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가능한 19개 사업을 최종 확정지으며 4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4단계 1차연도(2022)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각 사업들은 점차 본 궤도에 오를 계획이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단순히 5년짜리 사업이 아닌 지역의 핵심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중심으로 7개 시·군의 문화·관광, 산업육성의 단초를 마련해 각종 공모사업과 국비확보까지 연계함으로써 충북의 100년 미래먹거리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Vol. 28

02 기획특집

2022년부터 4단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이 새 출발을 시작했다.
특히 4단계부터는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이 추진 예정으로, 지역산업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제28호 기획특집에서는 7개 저발전 시·군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선택한 전략은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원고 내용은 지난해 12월 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최종 선정된 4단계 사업계획서(전략, 미래신성장동력)를 참고하여,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재정리하였다.

- 제천시 미래형 복합치유관광산업과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거점을 꿈꾸다
- 보은군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보은을 그리다
- 옥천군 미래 성장기반 마련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다
- 영동군 지역특화자원의 연계·강화로 남부권 新거점 타이틀을 거머쥐다
- 증평군 다시 한 번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작은 거인 증평을 알리다
- 괴산군 여유, 활력이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행복공동체를 실현하다
- 단양군 꿈과 희망이 있는 전문관광도시로 도약하다

미래형 복합치유관광산업과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거점을 꿈꾸다**

제천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제천시는 4단계 사업(전략/미래신성장동력)의 비전을 각각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실현', '모빌리티 부품산업 제조엔지니어링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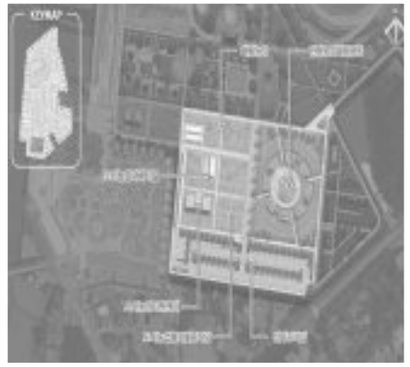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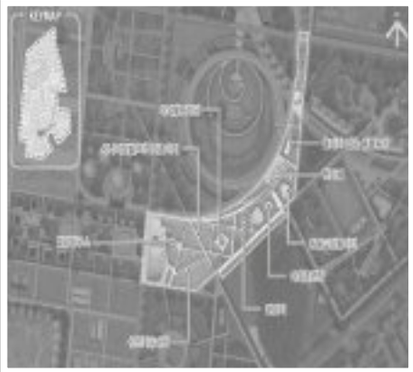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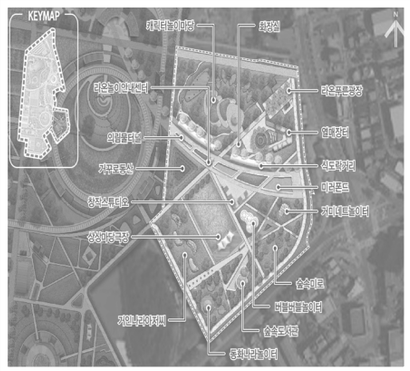
전략사업을 통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으로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함과 동시에 도심권역 내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지역 발전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하고자 하며,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트렌드 대응 측면에서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제조혁신 거점화를 꾀하고자 한다.

전략사업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

제천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의림지, 청풍호케이블카 등의 탄탄한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간 수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관광객이 원도심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지역의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사업 대상지인 의림지뜰은 우리나라 수리농업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인 동시에 고대 수리시설 중 본래의 기능을 간직한 국내 유일의 저수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단순한 관람에 치우쳐 국한된 자원 이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천시는 4단계 전략사업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을 통해 고대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의림지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전통농경문화 체험의 기회와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치유(천연·한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객을 도심내부로 유입시키고자 한다. 총 26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농업마루뜰 조성 및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치유누리뜰 조성 및 복합치유컨텐츠 개발, 라온누리뜰 조성 및 문화예술치유 활성화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 마루뜰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사업**(미래형 농업 육성공간) - 31,844㎡ / 92.5억원 - 한방 및 천연물산업을 기반으로 한 ICT 농업 및 테스트베드 구축 - 도시농업 육성 및 체험공간 **주요시설**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재배시설, 홍보활동마당, 체험농장, 텃밭, 한방농업체험공방 등	
치유 누리뜰 조성	**복합치유 컨텐츠사업**(교감을 통한 복합 치유 공간) - 13,664㎡ / 45.2억원 - 관광객의 심신 건강 및 치유를 위한 공간 **주요시설** 힐링하우스, 심신치유마당, 야외활동마당, 시니어 놀이터·텃밭, 펫카페, 동물농장, 동물교감놀이터, 야외훈련장, 펫쉼터, 원외탕정원(한약재) 등	
라온 누리뜰 조성	**문화예술 컨텐츠사업**(창의·문화활동을 통한 치유 공간) - 34,097㎡ / 96.4억원 - 공연 및 축제행사를 비롯한 창의, 문화, 예술, 활동치유의 융복합 공간 **주요시설** 캐릭터 놀이마당, 문화예술 체험공간, 상상마당극장, 라온푸른광장, 식도락거리, 열매장터, 창작스튜디오, 숲속도서관	
기타	**보행·관리도로 및 녹지시설 조성** - 2,1428㎡ / 25.9억원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플랫폼 구축,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기반의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260억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945.4억원, 소득유발효과 191.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00.9억원, 고용유발효과 576.9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역 외곽에 집중되는 관광수요를 도심으로 유도하여 원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실현하고 도시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등 상호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제천시는 2·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통해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클러스터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차부품산업은 스마트화, 경량화, 전장화로 발전함과 동시에 최근 들어서는 전기·수소차의 개발 및 보급화로 인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조혁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제천시는 4단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충북 북부권 지역의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자립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총 8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 및 장비 구축,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 장비운영 및 활용(시제품 제작, 생산·공정 혁신, 디자인 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로 5억원의 시비를 투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기술력 및 전문성 강화,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사업의 지속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①기반적 측면에서 중부내륙권 미래차(수송기계) 부품산업의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②산업적 측면에서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산업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는 것이며, ③경제적 측면에서는 관련기업의 고용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제품경쟁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보은을 그리다

보은군 | 기획감사실 지방소멸대응TF팀

보은군은 4단계 사업(전략/미래신성장동력)의 비전을 각각 '주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보은', '지역경쟁력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보은 캐틀포레스트'로 설정했다.

전략사업을 통해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명소화의 일환으로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경제·문화 부문)을 도모하고자 하며,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보은한우의 종축 선발 및 개량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전략사업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은군은 총 6개의 농공·산업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으며, 평균 분양률 98.6%의 호조로 인해 분양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보은군은 산업단지 분양 완료로 향후 공장입지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 등이 예상됨에 따라 4단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신규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기획했다.

조성 배경에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된 동부일반산업단지의 두드러진 성과(분양률 100%, 일자리 창출, 경제효과 등)와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산업경제 분야에서 기업 유치 및 고용기회 확충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도 큰 역할을 차지했다.

4단계 전략사업으로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3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산업단지 부지 내 도로계획(도로공, 토목공) 및 상하수도계획(상수공, 오·폐수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으로 보은군은 지역 내 산업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저렴한 용지공급을 통한 계획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로 직접 파급효과 3,834억원, 간접 파급효과는 8,477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16,490명에 달하는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지역 내 고용인원 유입효과로 인한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전략사업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

보은군의 속리산권역은 연간 15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지역의 대표관광지이며, 그 일대(법주사권역, 중판권역, 장안권역)를 중심으로 휴양 관광지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인근의 비룡저수지 일대는 관광자원의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로, 보완을 통해 지역 내 균형 잡힌 관광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4단계 전략사업으로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3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비룡저수지 일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특화경관체험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체험시설에서 볼 수 없는 목가적인 형태의 시설 도입으로 차별화된 지역 관광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비룡 수변 풍경길	- 시설(①~③) 간 연결 산책로 조성(2.2km) / 40억원 - 저수지변 데크산책로 설치 - AR 풍경존 등	
① 비룡 들녘	- 55,820㎡ / 33.6억원 - 부부소나무원, 해바라기원, 메밀꽃원, 플로팅포토존, 4절 초화원 등	
② 비룡 플레이 파크	- 13,300㎡ / 15.8억원 - 자연체험 + 스마트체험 제공 - 교과서 정원, 창의놀이터, 운동공간, 광장 등	
③ 비룡 유스촌	- 24,632㎡ / 36.6억원 - 숙박공간을 포함한 거점형 관광지 - 청소년 수련시설, 야생초화원, 중앙광장, 휴게공간 등	

비룡 수변풍경길, 비룡 들녘, 비룡 플레이파크, 비룡 유스촌 등의 세부사업이 추진되며, 사업 추진을 통해 보은군은 관광자원의 다양성을 꾀함으로써 지역 관광역량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지 주변의 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속리산 관광의 거점화를 위한 마중물사업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조성



최근 한우 사육 기반이 소규모 중심에서 기업화됨에 따라 생산비의 상승이 축산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는 등 고품질의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 판매가 가능한 BIT 융합기술(BT+IT)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보은군은 4단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한우 개량을 위한 연구시설을 구축해 충청권 한우개량 거점화를 도모하고, 농업-관광을 연계한 한우테마공원(캐틀포레스트) 조성을 통해 4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총 8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한우 유전자 DB 관리, 유전지 분석, 실험 등을 진행하는 클라우드 연구센터와 방목장 체험관을 비롯한 한우테마공원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로 보은한우의 유전자 개량을 통한 도체등급 향상, 지육률 상승 등에 따른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지역의 친환경 농업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보은한우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미래 성장기반 마련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다**

옥천군 | 경제과 균형개발팀

옥천군은 4단계 사업(전략/미래신성장동력)의 비전을 각각 '더좋은 옥천, 새로운 도약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로 설정했다.

지난 2 3단계 전략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로 변화 중인 옥천군의 도시 구조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4단계 전략사업을 통해 장계관광지 일원을 중심으로 리버스테이 휴(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구축하고,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 측면에서 농공단지를 신규 조성하고자한다.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는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 기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경부선 철도의 시설개량을 통해 충청권 인근지역의 도시 간 교통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략사업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

옥천의 유일한 관광지인 장계관광지는 지역 호반풍경 중 가장 장쾌한 풍광이 조망되는 아름다운 대청호반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1980년대 소풍 및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은 명소였으나 시설낙후와 대청호특별법 제정 등의 규제로 인해 재투자가 좌절됨에 따라 방치되었으며, 이후 군차원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광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에 발맞춰 지역 내 비대면 관광지 개발이 다시 논의되었으며, 장계관광지 내 선도적인 기능을 담당할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 등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옥천군은 4단계 전략사업인 '리버스테이 휴(休의)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장계관광지를 휴양 여가 및 문화 숙박 기능이 조화된 가족단위의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지역민의 수준 높은 여가 공간요구에 부흥하고자 한다. 총 18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장계 그린풀(Green Full) 타워, 로하스 테라피 하우스, 수변감상데크, 산책로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으로 옥천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광행태를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웰니스관광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80억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05억원, 고용유발효과 243,000명으로 추정되는 등 장계관광지 운영 활성화에 따라 인근 지역 상권 회복과 더불어 관내 대학 및 젊은 층의 고용유발, 지역민의 정주여건 만족도 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사업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현재 충북 내 제조업은 중부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남부권에 위치한 옥천군은 정통적 농업중심 도시로서 주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상을 띠고 있어 지역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산업단지(농공단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제조업 및 일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은 옥천군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략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옥천군은 4단계 전략사업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외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별 입지공장들을 유치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소득 및 고용창출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총 8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농공단지 부지(74,380㎡) 및 진입도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으로 옥천군은 당초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평당 11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약 40.9% 절감하여 저렴한 용지공급을 통한 계획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간 의료기기에 한정되어 육성되던 산업분야를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80억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80억원, 고용유발효과 108,000명으로 추정되는 등 지역 내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 기반 구축

지난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발표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 1·2단계(계룡~신탄진~조치원~청주공항) 및 옥천 연장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옥천~대전~청주공항 간 소요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 1·2단계 사업 반영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교통 기반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옥천군은 이를 지역의 미래신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판단했다.

이에 4단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이 될 광역철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옥천군을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총 8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ICT 등 4차산업 기술 접목한 광역철도 교통환승 인프라 및 광역철도 순환도로망, 철도보행육교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옥천역 일대를 광역교통 중심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로는 철도로 단절된 옥천읍 서부지역 양수리, 금구리 일원(1,500여 세대)의 주민 및 입주업체(50개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접근성 및 문화혜택을 제공해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 측면에서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할 것이며, 충청권 메가시티와 충북 남부권역의 연계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사례 추계분석에 의한 사업 성과분석]

구분	인구(개통 후 10년)	사업체수(개통 후 10년)	관광객수(개통후 3년)
양평군	8만→11만(37%↑)	4,946개→8,080개(63%↑)	751,842명→1,011,713명(35%↑)
옥천군	5만→**6.8만(37%↑)**	4,227개→**6,890개(63%↑)**	358,501명→**483,976명(35%↑)**

지역특화자원의 연계·강화로 **남부권 新거점 타이틀을 거머쥐다**

영동군 | 기획감사관 기획정책팀

영동군은 4단계 사업(전략/미래신성장동력)의 비전을 각각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영동군 융복합관광기반 구축', '미래 천연광물 일라이트 클러스터 영동'으로 설정했다.

전략사업을 통해 빙벽장이라는 자연공간을 활용해 4계절 이용 가능한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문화 자연 중심의 관광이미지를 탈피하고 리얼관광 중심지로의 전환을 주도하고자 하며,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일라이트 지식센터와 연계한 생산기반 강화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글로벌 일라이트 거점으로서 영동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전략사업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1·2·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영동군은 지역의 부존자원인 포도, 곶감, 와인, 국악 등을 활용해 관광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역의 대내 외적인 이미지가 포도, 국악 등에 한정돼 포지셔닝(positioning)되어있으며, 관광도시로서의 인지도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말 기준 영동군의 집객 관광객수는 약 82만명으로 도내 관광객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3개 시 군 중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영동군은 특정 테마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지역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객 역량강화를 위한 랜드마크 시설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4단계 전략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최신 관광트렌드인 힐링과 익스트림을 도입하여 기존의 관광체험 기능을 개선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사업 대상지인 초강천 빙벽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빙벽장으로 전문 빙벽인의 겨울철 체험관광명소이자 겨울철 썰매 체험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였으나, 특정 계절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와 더불어 최근 기능개선 및 전환이 요구된 바 있다.

특히 총 26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핵심아이템 2~3개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시설의 테마 수준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발방식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스카이(타워형) 전망대, 산악 잔도, 출렁다리, 메인센터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태자원을 활용한 상징적 관람·체험시설의 도입으로 신규 관광객의 유입효과와 관광소비 창출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통해 영동군은 대한민국 관광트렌드를 주도하는 2030 세대의 유입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연평균 100만명 관광시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상지역이 지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영동군이 도내 관광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임에 분명하다.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

영동군의 일라이트 매장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에서 일라이트의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원료의 적정 순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이자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일라이트사업의 성공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지역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역 주도의 적극적·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영동군은 4단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라이트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정 및 제품별 적정순도를 표준화하는 한편, 관련 제조업체들에게 R&D용 고순도 일라이트 원료를 공급하고 생산 공정에 대한 컨설팅 및 상용화 지원으로 일라이트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화 시키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충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총 8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일라이트 고순도 가공시스템 및 분석시스템 구축 운영, 일라이트 표준화, 효능 연구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통해 고순도 일라이트 생산센터는 '지역민의 소득 증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전·후방 산업의 생산증가 →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 형성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며,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원료 및 소재 국산화를 통해 국가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한 번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작은 거인 증평을 알리다**

증평군 | 미래기획실 미래전략팀

증평군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모범적 추진으로 낙후도가 단계별 사업을 거듭하면서 하위 3위(1단계) → 하위 6위(2단계) → 하위 5위(3단계) 등을 나타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4단계 사업에서는 기존에 추진했던 자치 인프라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타 시 군과는 차별화된 도시형 미래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H/W 정보기기와 기기 운영 및 정보 관리 필요한 S/W 기술을 이용한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형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자, 4단계 사업(전략/미래신성장동력)의 비전을 'ICT(산업-기술-문화) 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설정했다.

전략사업을 통해 문화향유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체(Community), 복합(Complex), 창작(Creation), 문화(Culture) 등이 어우러진 지역 생활거점 조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탈피하고자 하며,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제3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으로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전략사업 4C 문화산업 플랫폼 조성

2021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된 「공간복지기본법」에 따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복지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특히 증평군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타 시·군과는 달리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창업 및 문화시설 수요가 많고, 읍 소재지에 인구의 95%가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각종 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증평군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해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인 모델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4단계 전략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부여했다.

4단계 전략사업으로 '4C 문화산업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간 복지 Hub센터로의 역할수행과 함께 도시재생, 농촌중심지활성화,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지역 내 기 추진 중인 부처사업과의 시설 재배치 및 집적화로 지역공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총 26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ICT 창업 공간 및 스마트 벤처 육성 공간, 작은영화관, 콘서트홀, 세미나실, 전시공간, 야외광장(문화정원)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창업·교육·문화시설 타운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통해 증평군은 삶터-일터-쉼터-공동체터가 조화된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지역의 낙후 탈피, 젊은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 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로 5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9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이 발생함과 동시에 1,000명 이상의 인구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신성장동력사업 4D 기능성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

증평군의 경우, 지역 내 바이오소재 산업과 관련된 기업 및 인프라가 많은 상황은 아니나, 최근 4D 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 개소로 인해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기존 입주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내 기능성 바이오소재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센터 개소 이후 의약품 제조·생산을 위한 GMP 생산동을 구축 활용 중에 있으며, 향후 기업 수요에 따라 세부산업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증평군은 4단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4D 기능성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사업(30억원)'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내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으로 교육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능성 식품·화장품 GMP 생산동을 조성해 시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으로 향후 바이오식품&바이오메디컬&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2024년까지 민간자본 1,324억원을 투자하여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683,169㎡ 규모의 초중복합산업단지를 조성 중으로 4단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과 연계해 기능성 바이오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규모 감축 및 교육부 재정지원 중단 등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우수인력 양성 및 캠퍼스 활성화를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4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입주기업 2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기능성 바이오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신성장동력사업 4차 산업기술-관광 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

최근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해 등으로 지역 서비스 및 관광 문화산업 등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관련 서비스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비대면 지역경제 기반 산업의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증평군은 4단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4차 산업기술-관광 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기반과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차별화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발전시키는 기술혁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한다.

사업대상지는 2019년 부분 개장한 지역경제 기반이자 도내 최초의 관광단지인 에듀팜특구와 산림 종합휴양시설인 좌구산 휴양랜드로, 총 5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 Experience,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에코 플랫폼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용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과 경험의 가치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내 최초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주민 및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향후 증평군 전역으로의 스마트기술 확산을 통해 청주권, 세종시 등 인구 대도시의 여가 문화 수요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로 1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유, 활력이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행복공동체를 실현하다**

괴산군 | 균형개발과 지역발전팀

괴산군은 4단계 사업(전략/미래신성장동력)의 비전을 '삶의 여유와 활력이 공존하는 행복공동체'로 설정했다.

전략사업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과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농촌 정주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성장동력사업인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함으로써 관련기술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전략사업 메가파크로드 조성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최근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아닌 지속발전 가능지역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성장 동력의 다각화와 더불어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괴산군은 인구소멸지역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농엑스포 추진과 신성장산업 유치를 주력 아이템으로 꼽았으며, 농업 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메가폴리스 산단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4단계 전략사업으로 '메가파크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 및 분양가 인하 효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총 15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도로 및 공원·녹지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경쟁력 확보 및 조기 분양을 하며, 특히 공원 녹지 조성으로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더불어 근로자 근무환경 및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으로 괴산군은 개별업체 단위의 산발적 공장을 집단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625.1억원, 부가치유발효과 263.2억원, 4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략사업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

괴산군은 도내에서 귀농·귀촌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면별 특성을 반영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지 조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낸바 있으며, 청안면에 조성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및 제비둥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인 주거플랫폼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급속한 인구감소, 인구소멸위기 등의 대응책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은 계속되어야 하며, 기존 괴산읍에만 한정된 임대주택(LH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급을 면지역에 마련하여 인구 분산 효과 및 학생 수 증감에 대한 지역별 균형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괴산군은 4단계 전략사업으로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마을의 인구 유입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폐교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지속가능한 농촌 생활터전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총 11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공동임대주택 40호, 커뮤니티센터 4개동,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상· 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로 미성년 자녀 약 80명을 포함한 160여명의 인구유입이 발생해 관내 미취학 아동 및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폐교 위기에 처한 지역 학교와 연계해 지역상생을 도모하고,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젊은 귀농 귀촌인들의 초기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미래신성장동력사업 시스템반도체 첨단 AI기반 분석플랫폼 구축

시스템반도체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부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핵심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팹리스 및 파운드리 육성정책 외에도 반도체의 전체 생태계 완성측면에서 후공정에 대한 기술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며, 특히 4차 산업과 연계한 Iot, AI 등의 다기능화 스마트 제품에 있어서 후공정의 기술은 중요한 시장경쟁력 요소라 할 수 있다.

괴산군은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발맞춰 지역의 경쟁력강화산업으로 첨단반도체를 선정하였으며, 4단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시스템반도체 첨단 AI기반 분석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의존도가 높은 High-Tech 기술기반 시스템(첨단AI기반 분석기술 지원)을 적용, 반도체산업 R&D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총 8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첨단 AI분석 플랫폼 전용공간 확보 및 장비 구축 활용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괴산첨단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도내 반도체 대표기업 네패스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을 추가 유치시킬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통해 괴산군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한 분석센터의 선제적 구축으로 관련 반도체기업 유치에 유리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24.8억원, 부가치유발효과 70.8억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꿈과 희망이 있는 **전문관광도시로 도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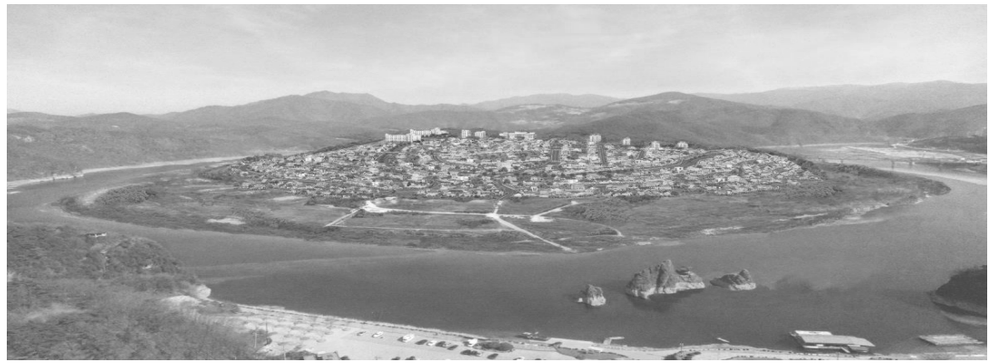
단양군 | 정책기획담당관 기획팀

단양군은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취지인 지역 활성화와 주민행복 증진과 더불어 군정목표를 반영함으로써 4단계 사업(전략/미래신성장동력)의 비전을 각각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스마트 천만관광 단양'으로 설정했다.

전략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기반 확대로 인구 유치를 촉진하고 체험·숙박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전문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콘텐츠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소비환경을 수용하여 시장지향 관광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전략사업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

도담지구는 1983년 도시계획 수립 이후 전체 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으며,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보류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도담지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지인 도담삼봉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합리적 개발을 통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바 시급한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단양군은 4단계 전략사업으로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 도담지구 기반시설사업 중 1단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계적 거점확산형 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한다. 총 198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도담지구 내 교차로 및 간선도로, 상수도시설 등의 조성으로 향후 복합 전원마을 형성에 기반사업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을 통해 단양군은 도담지구의 합리적 관리 및 소규모 전원마을을 신규 조성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단계적으로 도내 제일의 관광명소인 도담삼봉과 연계한 복합형 계획도시를 조성하여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구 유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사업 다리안 D-CAMP 플랫폼 조성

단양군은 만천하스카이워크를 필두로 체험관광의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 '천만 관광객' 유치, 2019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과 더불어 글로벌 체험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해외관광이 위축돼 자연·숲과 교감하는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하고 자연자원 중심의 아웃도어형 관광활동과 건강·힐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백산 다리안 관광지가 최적지로 주목받는 등 이를 활용한 한 차원 높은 관광산업 육성이 지역 차원에서 요구되었다. 다리안 관광지 내 위치한 유휴시설인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민간에서 운영하였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오다가 지난 2019년 단양군에서 매입함으로써 관광 거점화를 위한 준비를 마친바 있다.

단양군은 4단계 전략사업으로 '다리안 D-CAMP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닌 HW+SW+역량강화 연계로 장기적으로 단양관광이 가고자 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 62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유스호스텔 인프라 개선사업(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체감형 숙박시설인 다리안(多利安) 마을호텔을 조성,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공간화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통해 단양군에서 추진 중인 체류형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방문객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며, 지역공동체 참여 및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시행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디지털 뉴딜 기반 스마트 관광플랫폼 조성

최근 4차 산업혁명 대응측면에서 관광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기반으로 이동함에 따라, 개인화 맞춤화된 관광 서비스 및 마케팅을 위한 양질의 관광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의 역량이 중요하게 되었고, 더불어 국내·외 개별 관광객들의 개인화된 스마트 관광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음식업 및 숙박업의 비율이 36.9%에 달하며, 246개의 여행사가 등록되어 있는 등 관광 의존도가 높은 단양군 에게 관광객 대상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단양군은 4단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기반 스마트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기 구축된 관광기반시설들을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 사전 인지도 및 재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총 8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해 모빌리티(KTX이음·렌터카·관광택시 결합) 플랫폼 구축,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VR영화관) 시설 조성 등 체류형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20여개 세부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그동안 기 추진된 전략사업으로 단양군의 최대 강점인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바, 미래신성장동력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단양관광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Vol. 28

03 지역발전정책 정보

• **중앙정부 정책동향**
-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 **충북 대응방안**
- 충북 행복마을사업 독보적 성과 쾌거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
- 제천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 본격 가동
- '옥천 테크노밸리' 준공식 개최
- 단양 시루섬 '기적의 다리' 본격 조성

중앙정부 **정책동향**

01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를 68개소 선정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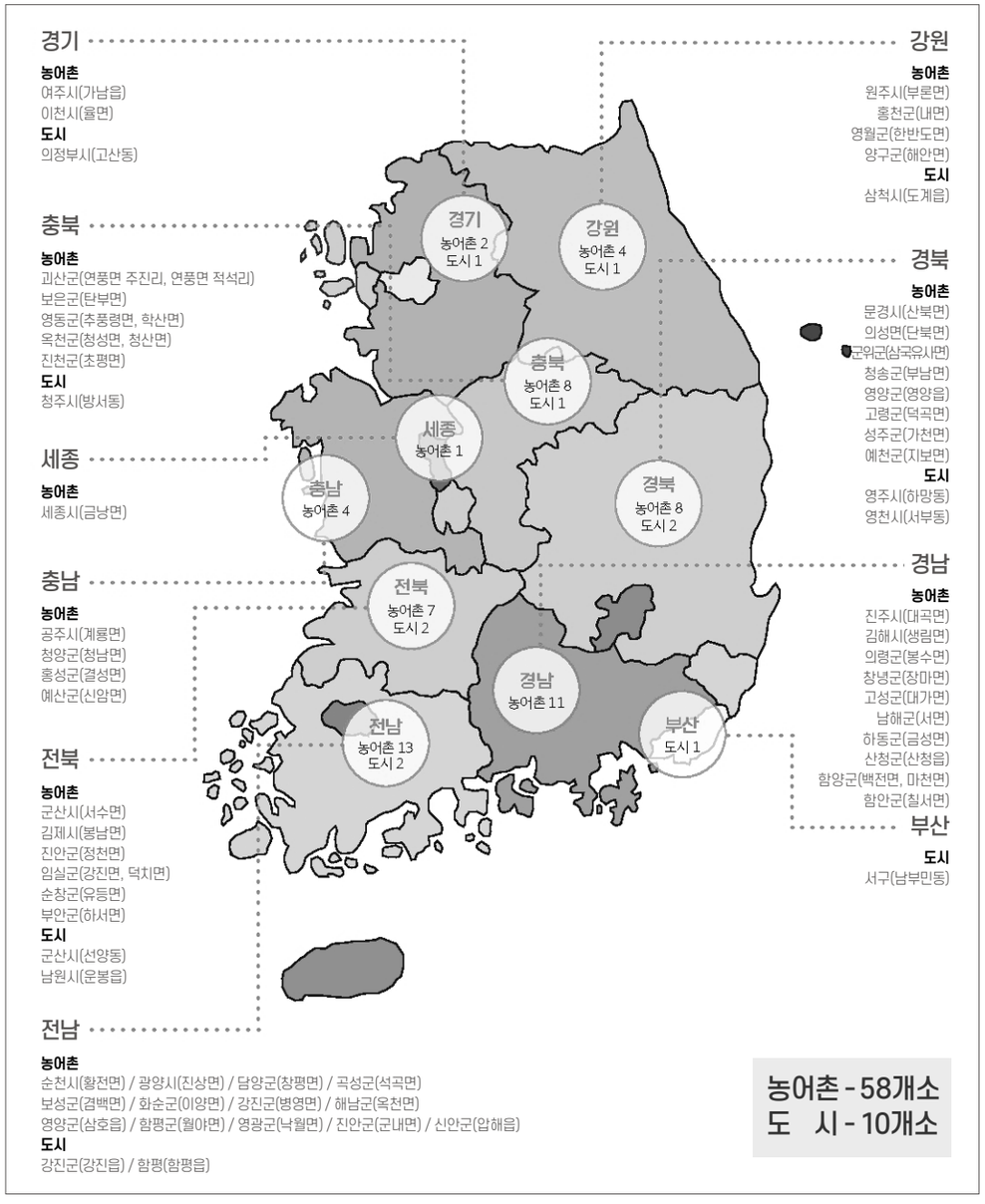
주요 사업내용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 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으며, 향후 4년 간 약 15~30억원(도시 30억원*, 농어촌 15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

충북 대응방안

01 충북 행복마을사업 독보적 성과 괘거

충북도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행복마을사업이 올해부터는 예산지원 확대, 전문가 컨설팅 투입 등 더욱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향상돼 주민들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행복마을사업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별 발전 격차가 없는 '골고루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저발전 7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업은 소외와 차별에서 배려와 공존의 경제·문화·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을 기초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마을주민들에게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충청북도는 행복마을사업이 지난해 3단계까지 대통령상 2회, 전국 최우수상 3회라는 괄목할 만한 결과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되는 4단계 사업에도 한층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단계 마을별 사업비도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를 거쳐 내년에는 선정 사업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함과 동시에 부처 공모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나아가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 행복마을사업, 내륙권 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40여개 사업에 행복마을사업의 마을별 사업을 녹여 충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세부사업에 일조를 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참고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

01 제천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 본격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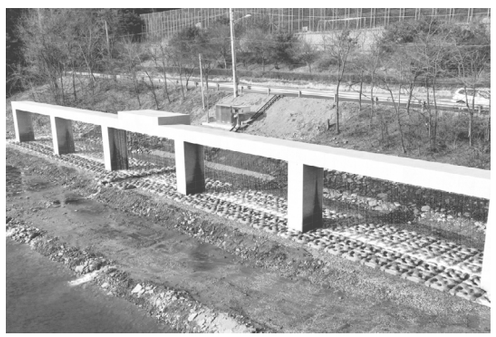
제천시가 장곡취수장의 잉여수자원 활용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해온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눈길을 끈다.

2020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었던 해당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원(도비 21, 시비 99)을 투입해 ‘장곡취수장-고암정수장-비룡담-의림지-하소천-장평천’까지 하나의 물길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작년 12월 관로 매설 등 시설공사를 마치고 지난 2월 시운전을 거쳐 3월 8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송학면 장곡에서 취수한 원수를 고암정수장에서 1차 처리를 거쳐 깨끗한 수질로 재탄생된 물은 비룡담 저수지(제2의림지)와 의림지, 하소천의 일정한 수위 유지기능 및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의림지뜰 농업용수 제공과 각종 친수공간 조성, 수질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는 펌프 압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 수압을 활용해 높이 4.8m, 길이 50m의 대형 워터스크린을 조성해 일몰 후부터 12시까지 방문객에게 시원한 물줄기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향후에는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룡담 저수지에 순환 데크를 설치하여 워터스크린을 가까운 거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고 야간엔 환상적인 추억을 제공할 계획이다.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향후 물을 테마로 한 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인근의 의림지 용추폭포, 의림지 역사박물관, 에코브릿지 등의 관광 인프라와 더불어 또 하나의 명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 **‘옥천 테크노밸리’** 준공식 개최

옥천군 미래성장의 도약을 위해 조성한 옥천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100% 분양계약을 완료하며 지난 3월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옥천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인근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에 힘입어 옥천군과 충북개발공사이 시행한 공영개발사업이며, 2012년 옥천제2의료기기단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착공해 6년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준공됐다.

총 35만7000㎡ 규모로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23만6000㎡이며, 특히 총 사업비 517억원 중 ‘3단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218억원을 지원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지리적인 장점과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 저렴한 분양가, 옥천군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의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준공 전 100% 분양계약을 달성했다.

2019년 11월 분양공고를 낸 이후 현대오피스를 비롯한 28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2,300억원의 투자금액과 1,500여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4월 ㈜청양식품 신축공장이 첫 입주한 이후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체 업체(28개사)의 입주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입주업체의 업태는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 9개소로 가장 많으며, 식품제조업 6개소, 금속 재제 및 조립 5개소, 의약품 제조 2개소, 기타 6개소이다.

03 단양 시루섬 **'기적의 다리'** 본격 조성

단양군의 꿈과 애환을 간직한 시루섬 기적의 다리가 최근 주탑과 현수교 제작에 필요한 바지선 선단 제작을 시작으로 본격 공사에 돌입하며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기적의 다리는 단양역 인근 5번 국도에서 시루섬을 거쳐 맞은편 수양개 관광지를 연결하는 현수교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며 총 길이 590m, 폭 2m의 현수교와 케이블식 다리를 합쳐서 만드는 하이브리드식 다리로 조성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은 지난 2021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9억원을 지원받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루섬은 1985년 충주댐 건설과 함께 자취를 감춰버린 단양강변의 작은 마을이었다. 1972년 태풍 '베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단양강이 범람해 마을의 44가구 250여명이 고립돼 생사의 갈림길에 섰지만, 기적같이 살아남은 애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시루섬에 얽힌 사연을 알리기 위해 섬이 잘 보이는 단양역 인근 국도변에 '시루섬 기적 소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기도 했다.



한편 단양군은 군민의 아픔과 기적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이곳 시루섬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완성해 수상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계획으로, 향후 기적의 다리가 완공되면 시루섬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는 2.5㎞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단양역 앞 나루에서 시루섬을 보트로 오가는 수상레저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

참고자료

- 충청북도 균형발전정보시스템(balance.chungbuk.go.kr)
- 충청북도 오늘의 道政報道 (22.03.01.~22.03.31)
- 각 시·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Vol. 28

04 2022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 2022년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로드맵

2022년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로드맵

4~5월

- **2022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컨설팅 실시**
- **2022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심의·선정**(도 균형발전위원회)

6월

- **균형발전 업무담당자 혁신역량강화** (외부 전문가 특강,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로드맵 설명 등)
- **사업 추진 모니터링**(2분기)

9월

- **사업 추진 모니터링**(3분기)

11월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보고서 작성요청**(시·군 전달)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서 작성요청**(시·군 전달)

12월

- **사업 추진 모니터링**(4분기)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서 수합**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Vol. **28**

발행일 2022년 3월 **등록번호** 충북 바 02400 **발행인** 정초시 **발행처** 충북연구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문화동 15)
연락처 T.(043)220-1190 F.(043)220-1199 **홈페이지** www.cri.re.kr **편집장** 원광희 **제작** ㈜케이에이치 T.(043)219-1184
비매품 본 지에 기재된 글이나 사진을 충북연구원과 집필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은 전적으로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충북 연구원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CRI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